

회 의 명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 간	2023. 9. 20.(수) 14:00~16:00		장 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참 석 자	참석 (6명)	- 연수구가족센터 센터장 주영신		
		- 연수구가족센터 총괄팀장 김솔		
		- 미추홀법률사무소 부소장 이도희		
		- E4NET 이사 임기운		
		- 센터 이용자 대표(비다문화) 정세연		
		- 센터 이용자 대표(다문화) 도수지		
	위임장 (5명)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주무관 안광남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이미정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진하		
		- 하나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해순		
		- 황원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원장 황원준		
작 성 자	김솔 총괄팀장			
회 의 내 용	1.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연수구가족센터 운영위원 11명 중 총 6명의 참석 및 성원권에 대한 위임장 5명 제출로 성원이 되어 이도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2. 운영위원 소개			
	- 김솔 총괄팀장이 참석한 운영위원 6명 소개 및 위임장을 제출한 5명을 안내하다.			
	3. 3분기 주요 운영 현황 보고			
	-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3분기 센터 주요 운영 현황 및 센터운영 현황, 3분기 후원사업, 3분기 주요사업을 보고하다.			
	• 위원의견			
	- 이도희 위원장이 회의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회의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다. 이에 임기운 위원이 동의하고, 정세연 위원이 제정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이에 동의하며, 3분기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하다. 현재 센터 사업 운영은 보조금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한정적이어서 센터에 서 필요한 사업은 공모를 통한 후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후원금 지원 또는 업무협약이나 프로포절 작성 등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하다.			
	특히 요즘 센터의 중점적인 사업중에 하나는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사업임을 보고하다. 다문화가족 중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진학,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입시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 입시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진학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 중3, 고3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진로 컨설팅을 1:1로 만나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최근 청학중학교와 연계하여 진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1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7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집단 컨설팅으로 실시했다고 보고하다.			

담임선생님의 설명과 안내에도 언어장벽으로 인해 소통의 한계가 있어서 통역사를 연계해 진로 컨설팅을 진행하니 이해도가 높았고 진로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설명하다. 센터의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지도 쪽에 중점을 두어 그들이 꿈을 꾸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다. 또한 요즘 한국어가 전혀 되지 않는 중도입국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과 후 한국어 교실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4. 2023년 3분기 예산 및 사업실적 보고

- 김솔 간사가 3분기 예산 정산 보고 및 사업실적을 서면자료와 PPT 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 주영신 센터장이 3분기에도 여러 기관으로 부터 후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부연설명하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재능을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하여 태권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형편상 재능을 키우기 어려웠던 다문화 가족 자녀 1명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고 최근에 인천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한 사례가 있고 그 자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열심히 태권도 배우기에 정진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이처럼 센터 직원들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다고 부연설명하다.

5. 2023년 4분기 주요사업 안내

- 김솔 간사가 4분기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다.
- 이도희 위원장이 직원 워크샵에 대해 제안하기를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혜택을 받지만 종사자는 사명감을 갖고 하더라도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위해 종사자들이 제대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사자가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힐링이 되어야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직원 워크샵 실시를 제안하다. 이에 김솔 간사가 하반기 계획으로 10월중 1박2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하다.

다음으로 인식개선캠페인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김솔 간사가 캠페인에 대해 구체적인 안에 대해 답변하다. 매년 5회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부스를 운영하거나 자체 캠페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SNS(연수가족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부스 운영, 가족 다양성 존중,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센터 홍보시 단순한 글자만의 홍보가 아닌 짧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순간의 집중력으로 어필 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제안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짤' 같은 것을 자체 제작이나 재능기부로 만들어서 짧게 임팩트 있는 효과를 준다면 읽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다. SNS 매체에 단순한 유인물을 올리는 것보다 짧은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프로그램 참여

했던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참여자가 홍보하고 나누는 것의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영상제작 홍보를 제안하다.

- 주영신 센터장이 여러 사업 중에 1인 가구 사업을 설명하다. 현재 1인 가구 사업은 노인,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 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1인 청년 비율이 높아서 혼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1인가구사업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1인 가구를 통해서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보고하다.

- 임기운 위원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포토키오스크 운영에 대해 제안하다. 포토 사진기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축제나 다양한 행사에 대여하여 진행해 본 결과 참여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시며, 센터 행사가 있을 시 대여해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하다.

▷ 이에 주영신 센터장이 10월에 다양한 축제가 운영될 예정인데 그 중 능허대 축제 부스운영에 대여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임기운 위원이 일정이 조율되면 대여 가능하다고 답하다. 4컷으로 출력되고 출력 매수는 원하는 대로 가능하며, 사진 하단에 센터명, 행사명 등 기재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계를 구매하여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대여한다면 가격을 인하하여 대여해 주기로 하다. 이에 주영신 센터장이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인사하다.

- 정세연 위원은 개인적으로 느낀 뿌듯함을 전하다. 처음 운영위원이 됐을 때 영유아, 초등 저학년 아이들 대상의 프로그램이 위주였는데 지금은 청소년 사업으로 확장되어 진로에 대한 사업이 생기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뿌듯하다고 전하다.

- 도수지 위원은 센터 이용에 항상 만족도가 높다고 하다. 최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지 않고 있고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정착한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다보니 대부분 일을 하러 나가 센터 이용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센터에 나와서 직접 참여하는 것 보다 온라인(ZOOM)으로 참여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하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자녀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연수네 공부방"에 다니고 있는데 한글쓰기 및 셈하기 능력이 올해 3월초 보다 현재 많이 향상되었다. 내년 3월에 학교에 입학하는데 처음에는 말하고 쓰는 부분을 많이 어려워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부방을 통해서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전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연수구가족센터가 연수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하다.

- 주영신 센터장이 지난 9월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처음 출전을 했다.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센터 실무자가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를 독려해 가며 잘 준비하여 5명이 출전하여 모두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무대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고하다.

- 임기운 위원이 E4NET에서 운영하는 기부플랫폼 체리에 대해 설명하다.

▷ 김솔 간사가 5월 축제에 기부플랫폼 체리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 활용하지 못하다고 답하다.

임기운 위원은 수수료 공제는 없다고 답하며, 카드 수수료는 제외 될 수 있다고 답하니 김솔 간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다.

6. 폐회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이도희 위원장이 연수구가족센터 2023년 제3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